

학교 밖 청소년, 고립을 넘어 자립으로 :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지원체계 개선 방향

학교는 청소년이 지식과 관계, 사회적 경험을 쌓는 중요한 성장 공간이지만, 모든 청소년이 같은 방식으로 학교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청소년은 검정고시나 대안교육 등 다른 배움의 방식을 선택하거나, 관계의 어려움과 심리·정서적 부담, 진로 고민 등으로 인해 학교 밖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간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단순히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자신의 학습과 진로, 관계와 일상을 다시 구성해 가는 청소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상담, 학업, 진로, 건강, 자립지원 등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정보 접근성 부족, 기관 간 연계의 분절성,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의 어려움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본 브리프에서는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생활실태, 고립·은둔 경험 및 지원 욕구를 살펴 보고, 생활권 기반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누구이며 왜 학교를 떠났는가

1-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에서 자신의 배움과 삶을 다시 구성해 가는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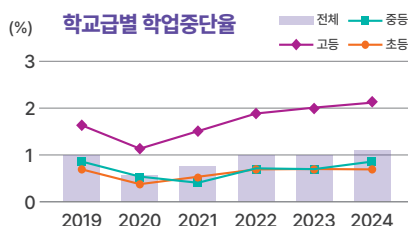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정규 교육체계에서 벗어난 청소년을 의미함. 그러나 법적 정의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음. 어떤 청소년에게 학교 밖은 다른 배움의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이고, 어떤 청소년에게는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관계의 어려움, 심리·정서적 부담, 진로 고민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임.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은 이탈이나 실패의 관점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자신의 배움과 삶을 다시 구성해 가는 청소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1-2. 전국 및 부산지역 학업중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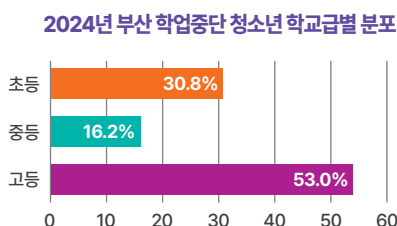
학업중단은 고등학생에 집중되지만, 저연령화 경향이 두드러짐

-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1%로 이전 학년도 1.0% 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전체 학업중단자 수는 54,516명으로 이전 학년도 54,615명 대비 99명 감소함.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0.7%, 중학생 10,216명(0.8%), 고등학생 27,065명(2.1%)으로 나타남. 부산의 경우 2024년 학업중단 청소년¹⁾은 총 2,554명이며, 고등학생 1,353명(53.0%), 초등학교 786명(30.8%), 중학생 415명(16.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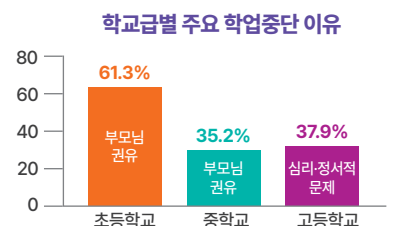
- 특히, 대인관계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전체 과반이 고등학생이지만 초등학교 비율이 중학생보다 점차 높게 나타나는 경향(저연령화)이 두드러짐. 학교를 그만 둔 이유²⁾에 대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부모님의 권유로 그만두게 되었다'는 응답(초등학교: 61.3%, 중학생: 35.2%)이 높았고, 고등학교 시기에는 우울·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가 학업 중단 이유의 37.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음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5).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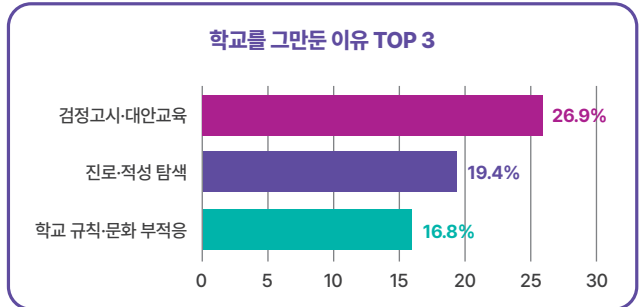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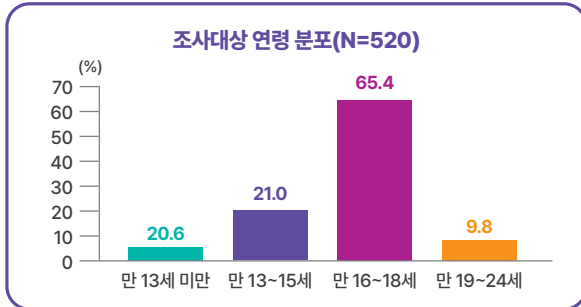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5).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출처: 여성가족부(2024).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학교를 떠난 다양한 이유: 대안적 배움, 진로탐색, 학교생활 부적응, 심리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520명 조사 결과³⁾, 연령대는 '만16~18세'가 65.4%로 가장 많고,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검정고시·대안교육 등 다른 교육방식 선택' 26.9%, '진로·적성 탐색' 19.4%, '학교 규칙과 문화 부적응' 16.8% 순으로 나타남.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획일적인 위기집단으로만 바라보는 접근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줌



출처: 조경미(2025).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재)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2 고립·은둔으로 무너진 학교 밖 청소년의 일상

2-1. 고립·은둔의 개념과 구조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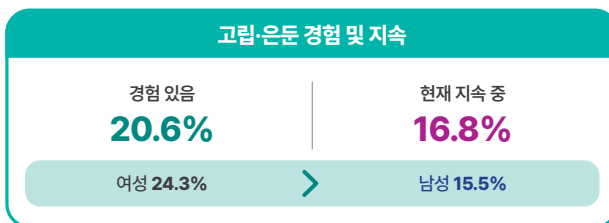
고립과 은둔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나 실제 삶에서는 중첩되어 나타남

-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이 약해져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유의미한 인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상태(관계적 개념)이며, 은둔은 외출과 사회참여가 현저히 줄어들어 집이나 방 등 제한된 공간에 머무는 행동·생활양식 중심의 상태(공간적 개념)임. 고립과 은둔은 분리되어 나타나기보다, 관계의 단절이 은둔으로 이어지고 은둔이 다시 고립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중첩될 수 있음

2-2. 고립·은둔 경험 규모 및 성별·원인별 분포

학교 이탈 이후 생활환경이 집 안으로 좁아지고, 5명 중 1명은 고립·은둔을 경험함

-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주된 생활공간은 '집 안'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학교라는 일상적 구조와 사회적 울타리가 사라진 이후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가정 안으로 축소될 수 있음을 보여줌. 외부(또래) 관계, 학습 리듬, 신체활동, 진로 탐색이 함께 줄어들 경우 고립·은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고립·은둔 경험률은 20.6%, 현재 고립·은둔 상태는 16.8%로 나타남. 여성의 고립·은둔 경험(24.3%)은 남성(15.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 특별한 이유 없음, 대인관계 문제 순으로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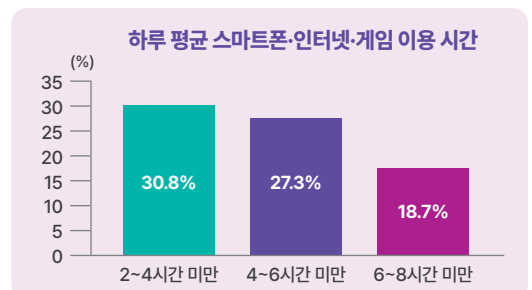


출처: 조경미(2025).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재)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2-3. 디지털 과몰입과 생활리듬 약화

디지털매체는 연결의 통로이지만, 과도하면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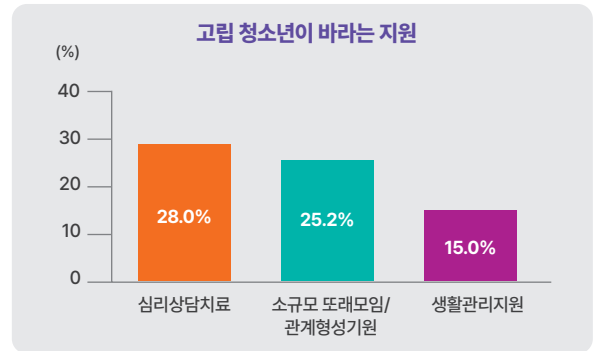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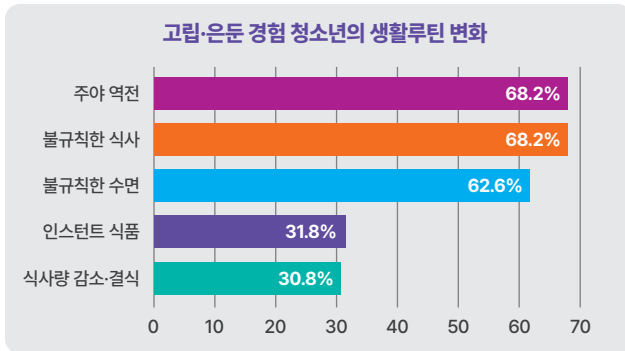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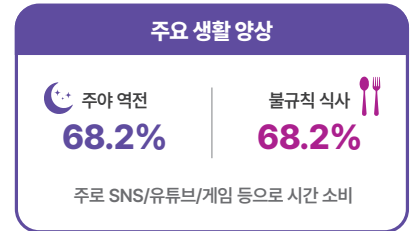
- 하루 평균 스마트폰·인터넷·게임 이용 시간은 '2~4시간 미만' 30.8%, '4~6시간 미만' 27.3%, '6~8시간 미만' 18.7% 순으로 나타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비율을 합산하면 46.0%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일상에서 디지털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 디지털 매체는 정보 탐색과 관계 유지의 통로가 될 수 있으나 수면시간 지연, 외출 감소, 온라인 중심 관계 고착, 학습리듬 약화와 결합될 경우 생활루틴 붕괴를 심화시킬 수 있음



2-4. 생활루틴의 불안정과 단계적 지원의 필요성

고립·은둔의 핵심은 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데 있음

- 고립·은둔 경험 청소년은 '주야 역전' 68.2%, '불규칙한 식사' 68.2%, '불규칙한 수면' 62.6%를 경험함
- 생활루틴의 변화도 나타났는데, 식사 패턴에서는 '인스턴트 식품 위주 섭취' 31.8%, '식사량 감소·결식' 30.8%가 확인됨. 고립·은둔의 핵심은 방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와 관계의 구조가 함께 무너지는 데 있음. 따라서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외출 요구가 아니라 안전한 첫 접촉, 관계 회복, 생활리듬 회복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함
- 고립 청소년이 바라는 지원은 '심리상담/치료' 28.0%, '소규모 또래모임/관계형성기회' 25.2%, '생활관리지원' 15.0% 순으로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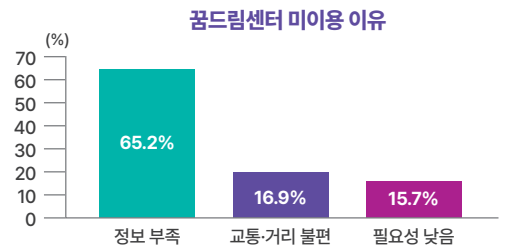


3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배움) 지속과 자립을 위한 조건

3-1. 지원기관 미이용 사유

지원기관이 있어도 정보가 닿지 않으면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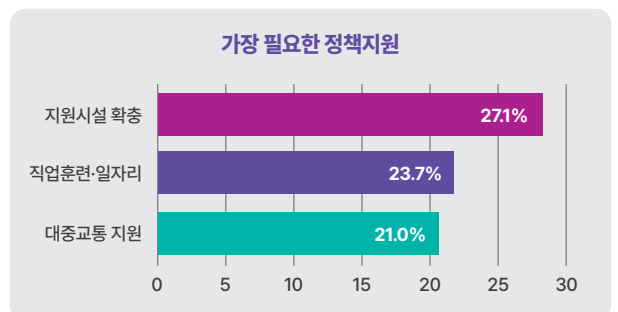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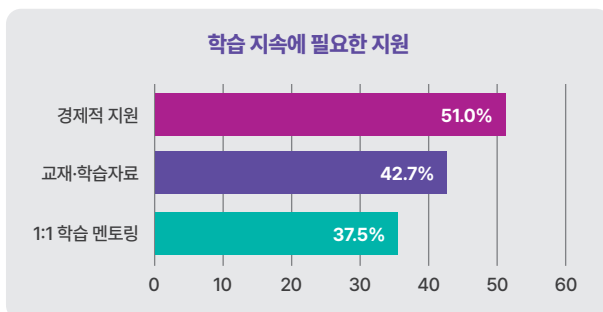
-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미이용 이유 중 '센터에 대해 잘 몰라서'가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도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학교 중단 전후 시점에 학교·교육청을 통한 반복 안내를 실시하고, 문자·카카오톡·QR코드·온라인 신청링크 등 청소년 친화적 방식으로 센터 정보를 제공해야 함



3-2. 학습 지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통합적 자립 조건

배움이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비용·멘토링·공간·일자리·이동권 지원이 함께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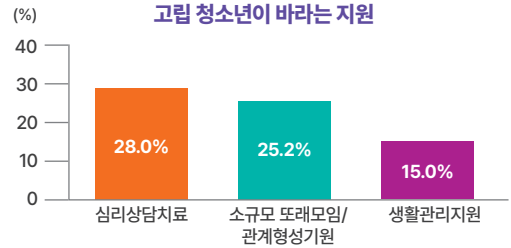
-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 51.0%, '교재·학습자료 지원' 42.7%, '1:1 학습 멘토링' 37.5% 순으로 나타남.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이 단순한 수업 제공이 아니라 학습비 부담 완화, 학습자료 제공, 개별 멘토링을 함께 포함해야 함을 보여줌



-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으로는 지역별 균형 있는 '지역별 균형있는 청소년 지원시설 확충' 27.1%, '부산지역 특화 직업훈련·일자리 연계' 23.7%, '대중교통 지원 확대' 21.0%가 제시됨.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실제 진로와 연결되는 일 경험, 지원기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을 함께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부산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는 학습, 진로, 경제, 공간, 이동권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회복·자립 경로로 연결해야 함. 청소년이 사는 지역 안에서 상담과 학습을 시작하고, 필요한 자료와 멘토링을 제공받으며, 부산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직업훈련과 일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권 기반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함

고립·은둔 청소년은 관계와 일상의 회복을 먼저 필요로 함

- 고립 청소년이 바라는 지원은 '심리상담·치료' 28.0%, '소규모 또래모임·관계형성 기회' 25.2%, '생활관리 지원' 15.0% 순으로 나타남. 이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이 프로그램 참여나 외출 독려보다 심리적 안정감 확보와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줌



4 부산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방향

4-1. 생활권 단위 지원경로 맵 구축

-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이 거주지와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생활권별 지원경로 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지원경로 맵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직업훈련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이용 가능 공간 등을 포함함
- 단순한 기관 목록 정보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 "상담이 필요할 때",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울 때", "일경험이 필요할 때",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등 청소년의 상황별 지원경로로 제시해야 함.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자, 학교, 지역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연결할 수 있음

4-2. 센터 이용률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보가 실제 청소년에게 도달하도록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해야 함. 학교 중단 전후 시점에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정보를 반복 안내하고, 문자·카카오톡·QR코드·온라인 신청링크 등 청소년 친화적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홍보는 기관 중심 홍보물 배포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청소년 공간,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병원, PC방, 편의점, 카페 등 생활권 접점으로 확대해야 함. 특히 센터 미이용 이유 중 정보 부족이 높게 나타난 만큼, 부산광역시 통합 안내 페이지와 구·군별 맞춤형 안내체계를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음

4-3. 고립·은둔 위험 청소년 조기연결 체계 마련

- 고립·은둔 위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기관 방문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비대면 초기면접, 찾아가는 상담 등 낮은 문턱의 접근 방식이 필요함. 외부 활동이 중단된 청소년에게는 상담·학업·진로 프로그램보다 먼저 신뢰관계 형성과 생활리듬 회복이 우선될 수 있음
-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계하여 고립·은둔 위험 청소년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모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4-4. 1:1 멘토링과 진로동행 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이 혼자 학습과 진로를 설계하지 않도록 1:1 멘토링과 진로동행 지원을 확대해야 함.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대안교육, 직업훈련, 취업, 대학 진학, 자격증 취득 등 여러 선택지를 고민하지만, 이를 혼자 판단하고 준비하기에는 정보와 경험이 부족할 수 있음
- 1:1 멘토링은 단순 학습지도가 아니라 청소년의 상황을 함께 정리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하며,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진로동행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멘토풀은 대학생, 직업인, 상담전문가, 청년 멘토, 학교 밖 청소년 선배 등으로 다양화하고, 학습형·진로형·정서지원형·생활관리형으로 세분화할 필요 있음

1)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가 공표되었으나 학업중단 지표는 2024학년도 기준으로 제시됨. 학업중단자는 해당 연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구조이므로, 본 브리프에서는 현재 공개된 최신 학업중단 통계인 2024학년도 및 부산지역 2024년 자료를 사용함

2) 여성가족부(2024).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3) 조경미(2025).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재)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